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2010년 말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 중 한 사람이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감리교 건물 외벽에 걸린 “드림 액트” 지지 게시물을 본 후, 블로그를 통해 “감리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블러거는 감리교회가 1968년 부터 연합감리교회가 되었으며,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수감자들을 방문하고, 빈곤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를 시작하고, 기초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17세기 부터 19세기 까지 만연했던 노예무역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던 이래 우리가 지속해 왔던 전통을 이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임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도자의 책임과 “크리스천 컨퍼런싱”의 연합감리교회 전통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블러거는 한 단체의 지도자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적인 문제들로 지금은 교회를 더이상 다니지 않지만 이전에는 “감리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편견을 마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거나, 자신이 속한 한 단체의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흔히 접할수 있는 일입니다.

크리스천 컨퍼런싱에서 우리는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동시에 서로간의 깊은 대화와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최소한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우리 본연의 자세에서 최선을 다해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문제들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일 때, 우리는 마음속의 생각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반응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총회만이 연합감리교회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성가신 절차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부터 어떤 개인적인 상처들을 추려낼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또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전국적인 정책결정 기구인 여성국 이사회가 우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성경공부, 연구와 논의를 통해 세상이 필요로하

는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맞추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연합감리교인의 방식이며, 이는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지만,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며 우리가 초점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주어진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문제들과 진실을 구분짓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듣기 위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세상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교회, 지방회 또는 연회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을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웨슬리 전통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처 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며, 겸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훈련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배제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여성국 국장

헤리엇 올스